

화이트 데이, 화이트 초콜릿



연 은 열 의
푸드특독

매년 2월 14일은 초콜릿을 선물하는 '밸런타인 데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달 뒤 3월 14일은 '화이트 데이'다. 화이트 데이는 약 40년전 밸런타인 데이에서 파생됐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밸런타인 데이에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로 정착했고, 한 달 뒤 화이트 데이에는 반대로 남성이 여성에게 흰색의 화이트 초콜릿 또는 마시멜로우를 주는 날로 자리 잡았다.

초콜릿의 종류는 얇고 손바닥 만한 크기의 판초콜릿에서부터 손의 체온으로 녹지 않도록 대체유지를 사용하여 용점을 높인 새알모양의 초콜릿, 초콜릿 안에 위스키 등 술을 넣은 술 초콜릿까지 모양과 풍미가 다양하다.

다크 초콜릿은 코코아 고형분, 코코아 버터, 소량의 설탕을 함유하지만 분유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크 초콜릿은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쓴 맛부터 단것까지 비터스위트, 세미스위트 등 다양하다.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프리미엄 초콜릿에 카카오 빈 비율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70% 초콜릿은 중량 기준으로 코코아 버터

와 코코아 고형분의 비율이 70%, 설탕이 30%라는 뜻이며, 62% 초콜릿은 38% 정도가 설탕이다.

초콜릿이 발명된 유럽에서는 신선한 우유를 분무 건조한 전유 파우더로 밀크 초콜릿을 만든다. 영국에서는 액상의 우유와 설탕을 섞고, 이 혼합물을 고형분 90%까지 농축하고, 이것을 초콜릿 리큐어와 섞은 다음 초콜릿 부스러기라고 부르는 재료로 건조해서 마무리한다. 분유와 설탕은 농축과 건조를 거치는 동안 갈변반응을 겪으면서 밀크맛과 캐러멜화 맛을 생성한다. 초콜릿의 주원료는 코코넛이다.

카카오 빈을 분쇄한 미세한 입자는 초콜릿의 풍미와 색깔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코코아 분말은 강한 초콜릿 맛을 갖고 pH 5 정도의 산성을 나타낸다.

코코넛은 견과류 가운데 크기가 가장 크다. 코코넛은 코코스 누키페라의 열매다. 야자나무처럼 30m 높이까지 자란다. 주요 생산국은 필리핀·인도·인도네시아다.

코코넛의 독특한 단맛과 향은 락톤이라는 포화지방산의 휘발성물질이다. 복숭아의 맛도 락톤에 기인한다. 한편, 볶으면 그보다 보편적인 견과향이 생성된다. 초콜릿의 최적 보관온도는 15~18°C이며, 코코아 버터 지방이 녹았다 재결정화되지 않도록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어야 한다.

간혹 보관중인 초콜릿 표면에 곰팡이나 가루처럼 보이는 흰색 더께가 생길 때가 있다. 이것을 '랫블룸'이라고 하는데, 불안정한 코코아 지방결정에서 녹아 나온 코코아가 표면으로 이동해 새로운 지방 결정을 형성한 것으로 먹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랫 블룸은 처음에 적절한 탬퍼링을 하면 방지된다. 탬퍼링은 콘칭(conching)한 초콜릿 리큐어(chocolate liquor)를 데우고 식히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초콜릿 표면에 매끈한 질감과 윤기를 부여하는 공정이다. 또 약간의 정제 버터를 녹은 버터에 첨가해 주면 랫 블룸의 발생을 지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제버터가 지방 혼합물을 더 무작위로 만들어 결정 형성을 지연하기 때문이다.

고급 초콜릿은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입에 넣으면 특이하면서도 상쾌한 느낌을 준다. 이는 초콜릿이 녹으면서 입안을 식혀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초콜릿의 안정된 지방결정이 체온 부근의 온도대에서 녹기 때문이다. 고체에서 액체로의 상(phase) 변화는 입안의 열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해서 시원한 느낌이 나게 된다. 코코넛 지방은 거의 90%가 포화지방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한 섭취는 과유불급(過猶不及)임을 인지하기 바란다.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증권사 CEO 세대교체



기 지 수 섭
원 관 회
(자본시장부)

최근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최고경영자(CEO)를 바꾸는 등 세대교체에 나섰다. 특히 이번에 장수 CEO들이 물러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젊은 수장들이 자리를 채웠다.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이 창립멤버였던 최현만 대표를 26년 만에 퇴임시키고 김미섭·허선호 부회장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 것을 신호탄으로 증권사 CEO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메리츠증권은 14년 만에 최희문 대표를 장원재 세일즈앤트레이딩(Sales&Trading) 부문장으로 교체했으며 한국투자증권

도 5년간 재직했던 정일문 CEO를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1세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문가 김성환 사장을 CEO로 선임했다. NH투자증권도 투자은행(IB)전문가인 정영채 대표의 4인임 대신 그 자리에 윤병운 투자은행(IB)사업부 부사장을 내정했다. SK증권 역시 11년간 이끌었던 김신 대표가 퇴진하고 정준호 리스크 관리본부장이 후임으로 추천됐다. 이밖에도 삼성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등도 CEO를 교체했다.

증권사들의 세대교체에는 불안정한 경영 환경에 대비,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업계의 핵심 수익원인 IB 사업이 국내 PF 시장 침체에 따른 딜 감소, 사업장 리스크 관리,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등

각종 악재로 위축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공을 쌓은 실무형 CEO를 앞세워 대대적인 변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신입 CEO들의 앞에 놓인 상황이 만만치 않다. 여전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당장 눈앞에 닥친 부동산 PF리스크와 홍콩ELS 손실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위축된 부동산 PF사업 대신 신사업에 도전해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CEO들이 영업 환경 악화를 타개할 만한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부 조직의 역동성을 살리는 것이다. 새 CEO들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wk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14일 (음 2월 5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자신 사랑. 48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들어오는 날. 60년생 작은 먼지로 눈물이 날 수 있다. 72년생 기다리던 문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듯. 84년생 지나간 시간 의지처가 없다.
- 소** 37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49년생 조상님의 도움이 필요한 날. 61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이다. 73년생 눈앞의 실속만 행기 다 보면 결국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85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
- 호랑이** 38년생 구설수가 예상되니 남의 탓 하지마라. 50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왔으니 힘껏 노력. 62년생 오랜 적인이 드디어 내게 돌아온다. 74년생 나의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니 감사. 86년생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거니는 것.
- 토끼** 39년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았다. 51년생 돼지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성사된다. 63년생 우물에서 송능 찾지 말고 마수에 순서를 정하라. 75년생 정확한 행동이 상호관계를 좋게 한다. 87년생 부모님의 판단이 나보다 옳다.
- 염** 40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 52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 두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 64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인데. 76년생 보라색 옷이 사랑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88년생 지나친 행복은 오히려 불만.
- 뱀** 41년생 이웃과의 거래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53년생 전진을 위해 1보 후퇴가 필요. 65년생 지인에게 비굴하지 않아야 할 터. 77년생 능력도 기회가 주어지지 발휘할 수 있건만. 89년생 두통이 계속되면 머리 방향을 바꾸어 볼 것.
- 말** 42년생 충고는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54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방법을 찾게 된다. 66년생 어제의 바람이 태풍이 되어 돌아온다. 78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90년생 동쪽으로의 여행은 실망감만.
- 양** 43년생 세상만사 새옹지마니 일회일비의 금물. 55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오는 법. 67년생 어항 속처럼 변화가 없다. 79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91년생 새벽 도로에서 안전운전을.
- 원숭이** 44년생 자손에게 좋은 소식이 온다. 56년생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이다. 68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하지마라. 80년생 가까운 친구가 나를 모함하니 인간관계에서 애절한 슬픔이 밀려온다. 92년생 일해오던 견학업에서 이득이 난다.
- 닭** 45년생 오늘이라는 시간은 당연치 중요. 57년생 가족의 협조를 얻어 꼬인 일을 풀어 나가자. 69년생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하자. 81년생 교육계의 진출은 원만한 발전. 93년생 지출만큼 저축도 해가면서 투자에 관한 공부.
- 개** 46년생 무조건 돈에만 매달리라는 게 아니다. 58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찌하겠나. 70년생 오갈 곳이 없어 답답한 하루. 82년생 바위에 올라앉은 화초의 상이다. 94년생 나이 들어 경제적 고통을 피하려면 미리부터 대비.
- 돼지** 47년생 내 집을 갖고자 만반의 계획을 세웠다. 59년생 말이 상대를 괴롭히는 이상한 결과가 되니 말조심. 71년생 그들이 그러는 날이다. 83년생 밖은 꽃이 피었으나 마음은 찬 바람이 불고 있구나. 95년생 시행착오를 덜 거치려면 평소애 공부.



김상회의四季 부동산 우박

돈은 재물이고 소중한 보물이라 재성財星이라 칭한다. 집을 살 때는 돈을 주고 도장을 찍고 문서를 가져오니 도장인인을 써서 인성인부에 명한다. 돈을 어디에 많이 소비할까. 모두 같지는 않겠지만 과거나 현재나 집과 자동차에 가장 많이 소비할 것이다. 이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자기의 경제적 여유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수입차 판매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다. 버는 돈보다 과시욕으로 고급차를 타는 사람도 있다. 집도 큰집이나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유튜브는 소득 수준은 높지 않은데 큰집이나 비싼 집을 산다면 스트레스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한다. 집을 살 때는 대부분 대출이 불가피하다. 대출을 받고 나면 상환액과 상환기간에 끌려다녀야 하니 스트레스 잘 표현한 것 같다. 대출을 갚는데 맞춰서 소비하고 생활해야 하는 데 이게 큰 스트레스다. 집을 샀다가 며칠 만에 팔아버리고 다른 걸 사는 그런 단순한 소비가 불가능하다. 만약 집을 잘못 샀다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 집값이 오를 걸 기대하고 샀는데 오르지 않으면 고통이 시작된다.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라도 한다면 인생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듯 집을 산다는 건 엄청난 위험이며 집을 사는 건 살면서 가장 비싼 소비를 하는 것이다. 돈 앞에서 본능적으로 대박의 큰 꿈을 이루려는 허욕이 일어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는가. 와중에 현재는 부동산 관련하여 숱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으니 일말의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술가術家의 예측 분야에서 인성 재성이 태고하면 어떻게 된다. 라고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돈에 무리수를 둔다면 가을철 김장배추나 무가 우박을 맞는 이치를 실감하는 계절이 곧 올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8		1		6	
			4	3	2			
9								
1					8	9		
	9	2				8	4	
		7	3					2
								4
			9	1	7			
8	1		2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기의 퍼즐과 재미를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8	7	2	9	1	2	8
9	8	2	1	1	6	8	7	9
7	1	2	1	2	8	9	8	6
2	9	9	1	6	8	2	8	7
1	7	8	9	2	9	2	6	8
8	2	6	8	7	2	9	9	1
2	7	9	9	1	8	8	6	1
8	6	9	2	8	7	9	1	2
9	8	1	6	8	2	7	9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39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9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